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22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12. 29(수) 14:13~18:52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제32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과 안건보고자, 감사님, 감사실장 등 여러 임직원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무처 직원들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참관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고필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전고필 위원님을 제외한 11인의 위원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2022년도 정 시공모 사업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원총괄부 전희영 차장을 포함한 12인의 예술 지원을 담당하는 사무처 직원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옥 노동조합위원장도 회의에 참관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前次) 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차 전체회의에서는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1건이 원안의결, 2건이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20차 서면회의와 제321차 서면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총 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사무처장직무대행이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2건의 의결사항과 8건의 보고사항이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논의사항도 5개가 준비되어 있는 형편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의결사항 중에 첫 번째 의결안건인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1차 지원심의결과를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건은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안건번호 제921호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1차 지원심의결정의 건입니다. 정시공모 1차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을 확정하기 위한 건이고요. 총 4,234건이 접수되어 그중에 1,405건 364억 원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자료 8페이지입니다.

심의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상에서 일어나는 주요사항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지원신청 접수입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별표를 보시면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의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책정한 예산 규모 대비 신청이 너무 적어서 공모를 11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본공모 사업은 1월까지 접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는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지원신청 접수 결과표를 보시면 작년에는 총 3,675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올해는 4,234건으로 559건이 전년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예술인력육성 중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은 1월 초에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오늘 결과보고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주요개선 내용입니다.

창작지원 규모와 영역 확장, 공모 접수 결과 사전안내, 지역균형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었고요. 영유아 돌봄비 편성은 선정사업들 중에 총 53건, 배리어프리의 경우 37건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정시공모 2차는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요. 12월 22일부터 1월 21일까지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예술사업과 국제교류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의 심의위원 관련입니다. 전담심의위원제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번의 지역균형지원제도 적용인데요. 기준비율이 창작 분야는 28%, 향유 분야는 36%로 책정을 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적용 결과를 보시면 적용했던 총 16개 사업 전체를 봤을 때 신청건수의 지역사업 대비가 36%였고요. 선정된 비율이 35.7%로 신청비율과 지역사업의 선정비율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창작 분야는 35.6%, 향유 분야는 36%로 당초 책정했던 기준비율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역사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체의 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해서 적용된 결과는 회의자료 20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업의 경우에는 이 기준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진행을 했던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 중장기사업 같은 경우 별도의 트랙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역의 안배라는 게 별도의 가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의위원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차(前次) 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의결을 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12페이지 구성 경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264분의 심의위원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이 중에 3인은 아예 전체 심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사정으로 1차 서류에 불참하신 분이 2인, 2차 인터뷰심의에 불참하신 분이 8인인데요. 특이사항은 아시다시피 심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심해서 심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총괄부에서도 심의와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과 관련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요. 일종의 백신패스에 해당하는 심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심의 중에 밀접접촉자로 연락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심의에 못 들어오신 심의위원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런 인원들이 불참인원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이후의 내용들은 심의위원이나 각 사업별 선정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선정내용을 오늘 의결해 주시면 내일 기관 홈페이지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오늘 의결을 해 주시더라도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정산 사업에 해당하거나 부정수급과 같이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해서 선정해 주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회수조치를 하거나 선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각 사업별 심의위원, 사업별 지원심의결과, 심의결정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결과의 의결을 위해서 예술창작본부의 본부장을 포함해서 문학지원부, 시각예술부, 공연예술부의 각 부장들과 예술확산본부의 지역협력부장 또 예술인력개발원 등 정시공모와 관련된 전 부서의 부서장이 현재 접속하여 있고 직접 회의에 참석하신 직원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전고필 위원께서 참여하시어 위원 전원이 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4시 22분 전고필 위원 회의 참석)

홍태림 위원 : 질문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1쪽에 5번을 보면 논의사항으로 2022년 정기공모 선정자 중에서 미정산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비 선정자에게 기회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이 단순히 회수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느 영역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21쪽에서 예시한 미정산과 관련된 것이 어느 지원사업이죠?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지원이 회수되어 지원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각 사업별로 예비지원대상이 선정되어 있으면 예비로 넘어갈 것 같고요. 예비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박종관 위원장 :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예비지원대상이 선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대부분 예비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비 순위가 받아가게 되나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박종관 위원장 :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수혜를 받느냐의 문제가 질의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답변은 “예비 순위자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라는 답변인 것 같아요.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선정자가 취소가 되면 예비 순위자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말씀을 드리면 공고가 나서 한 달 내에 자발적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형식으로 취소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항처럼 미정산이 있으면 한 달 내에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취소가 되었을 때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비로 확정된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비가 확정된 부분은 예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금액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신청금액과 잔액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무처장직무대행부터 예술인력개발원장, 예술창작본부장의 설명이 차례로 있었는데요. 홍태림 위원님 답변이 되셨죠?

홍태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열 위원 : 17페이지와 18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늦게 발견을 했는데요.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보시면 공연예술중장기 창작지원에 신규단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수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별첨2와 비교를 하시면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보게 되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22억 원과 28억 원으로 6억 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없는데 지원자 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지금은 25%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2%, 11%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했을 때 수도권에 지원 자원만큼이라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도 특히 음악이 굉장히 적게 배정을 받았습시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의 경우 격차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음악은 수도권에서 32개 팀 중에서 10개 팀이 탈락을 했습니다. 3~4팀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

다고 하지만 10팀이라는 것은 30%가 결격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 회피가 꽤 많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를 보면 개인적 친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야에 따라서 심의위원을 추천할 때 정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도 이 분은 다 아시지만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총평들을 잘 써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업취지나 심의절차 아니면 심의 시 특이사항, 바라는 점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2개의 총평은 다소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총평을 보완하는 의견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이 필요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요약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안배 문제는 지역최소보장제 그러니까 지역균형지원제가 있다면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요. 이 부분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문제에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음악의 대규모 결격 문제와 관련해서 사유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심의회피 문제도 마찬가지로는 것이죠. 규칙성이 있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고 피해갈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질의를 해 주신 총평문제. 총평문제는 사실 저희가 조금 가이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가지 내용이 들어가도록 가이드를 다시 한번 재설계해서 적어도 총평이라고 할 때 들어갈 내용이 꼭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네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지금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결과보고 자료와 의결자료에 나와 있는 기본 데이터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에는 신규지원 수도권이 169건이 신청되었고 비수도권이 81건이 신청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취합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정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연속지원 사업에 대한 유형별 예산의 배분에 대한 기준안을 저희가 올해 마련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배분방식을 볼 때 전체 70억 달하는 예산의 30% 수준을 각 유형별로, 그러니까 연속지원, 신규 비수도권, 신규 수도권에 각각 20억 원을 3등분을 해서 공동배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배분 잔액들을 지원신청접수현황 등을 고려해서 4:1:4:1의 기준을 준용해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준들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 산식으로 조정해서 배정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에 대해서 행정 결격 사유가 많이 나왔던 사유는 저희가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의 필수 제출서류들 중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고용보험에 관한 것과 수입에 대한 소득을 신고했는지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필수 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음악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심의총평은.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심의회피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어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심의회피와 관련해서는 올해 지원심의 회피 전도사라고 할 정도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전 대표 등의 사안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최소한 이 심의의 결정 사유가 발표 났을 때 심의위원과 선정단체 간의 개인적 친분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회피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심의회피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공연예술분야 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오리엔테이션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총평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배포를 하고 다시 받아서 다른 심의위원님들께도 회람을 하고 수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정종열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할 수 있는지를 심의위원님들과 따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리고 자료에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문학 분야 지원사업 세 번째 줄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건수가 8건이고 지원선정건수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중에 조건부 결정이 된 것이 있는데 추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결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선정 건수는 6건이고 잔여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비선정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불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9페이지의 불임자료를 보시면 조건부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선정된 단체는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캠퍼스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지원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설임에는 분명한데 학교재단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의결을 진행하는 중에 특별한 단체를 열거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도 괜찮을까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첨부된 지원심의결과 자료에 적시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오픈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이미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때, 심의단계에서 공통조건의 결격사항이 확인되지 않아서 일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만, 확인이 되어 결격으로 확인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바로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심의를 진행한 결과 결격 처리를 했고 나머지 잔여액수가 얼마인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1억 4,000만 원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1억 4,000만 원을 제공모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제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실 텐데요. 심의회피가 많은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가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앞서 지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상적인 배분 문제라든가 음악 단체가 여타 단체에 비해서 행정역량 등이 부족해서 결격이 많았다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겨드요. 그리고 총평 문제는 따로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네가지 이야기를 집어넣고 대안을 세워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발표일이 내일로 예정된 상황이라서요.

박종관 위원장 : 이번 총평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개선을 해 나가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심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현재 안배 방식 등이 연속을 3분의 1정도 하고 신규 비수도권을 3분의 1정도로 하고 신규 수도권을 3분의 1정도로 해서 이상적인 배분을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답변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선정된 연속지원사업의 거의 대다수 단체들이 수도권 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3개의 유형을 합쳐놓고 보면 지금 현재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십시오. 2022년 정기공모는 굉장히 큰 의결사항이라서 심사숙고하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렸음에도 직접 문제제기를 하거나 직접 지적하고 질의응답을 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공모를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4,234건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1,405건의 지원을 선정했다고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술단체나 예술가에게 있어서 작품은 한 예술가의 생애이면서 우주다.” 그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4,234개의 예술단체나 예술가의 생애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모두 지원할 수가 없고 1,400여 개 정도를 선별해서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내년에 예술계에 내놓는 것이죠. 그게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예술지원사업의 일거리일 텐데요. 이렇게 정기공모를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검토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과 문학지원부장이 보고 드린 결격사유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1차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셔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박경주 위원 : 동의합니다.

이원재 위원 :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반대가 없고 위원님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강병주 경영지원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회의자료 2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사업과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다음연도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과 목표는 기관임직원 및 안전관리 대상사업 및 시설에 대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과 중요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근로자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무재해 및 무사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총사는 총 8개로 수도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제 2종 시설물 2개 그리고 제3종 시설물 5개 등 7개가 있고요. 나주에 나주청사 1개가 있습니다. 안전 예산은 내년도에 50억 7,700만 원인데요. 금년도 32억 3,000만 원 대비 36.4%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인력은 총 33명으로 금년도과 똑같습니다. 나주에 총괄 관리자를 포함한 6명이 배정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에 27명이 안전경영관리에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작업장 안전 분야에 안전규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분야에는 안전의 날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면서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점검 계획은 수도권 5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전문업체의 업무대행을 맡겨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 시설별로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4의 자료로 배포해 드린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영책임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의결사항이라서 경영지원부장의 안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셔도 좋고요.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시백 위원 : 직접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소통소위에서도 개선된 사항인데요. 안전경영책임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안으로 보고된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시설이나 관리에 집중되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공간 또 위탁하는 사업에서의 안전계획이나 점검, 예산 배정의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이러한 취지는 지원사업 중에 보면 외부 집필공간사업지원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예상될 수 있는 화재라든가 안전사고 발생 시 그 보상책임의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나 예방 활동을 어떤 실태로 하고 계신지? 또 이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지금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은 직접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보조하는 지원금 대상 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단체나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각 단체나 대상 시설에 필요한 안전소요예산을 보조금 내역에 편성해서 신청하시면 그것을 심의할 때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결정하게 되면 간접적으로는 그것이 커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드리면, 저희가 지원하는 외부 집필공간에서 화재가 나서 공간에 들어갔던 작가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상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해외 레지던시나 교류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어떤 대책이 명문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지금 안전으로 올라와 있는 우리 위원회의 안전경영책임계획(안)의 대상범위는 우리 위원회의 소속 임직원과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그리고 시설에 출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것은 법의 지침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이 논의안건과는 별개로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별개의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예술단체나 예술가가 추진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스스로 책임이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일어나면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니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문학집필공간 심의를 할 때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술계의 조력을 해 주는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상해보험입니다. 아까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얘기하신 것은 상해보험인데요. 상해보험의 경우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얘기한 것은 모 문화예술회관의 사고 건도 있었구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의 일부를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황인데요. 공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조금을 통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검토를 하면서 노력을 하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자료를 보니까 예술가의 집이 사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2022년 7월부터 내진 보강공사가 완료된 후에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2023년 예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2023년도 예산은 내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에 신청하는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재난안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부분 일 텐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재난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대피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시청각 장애인한테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보들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등은 지금 주신 문건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방문하는 공공장소인만큼 장애인 관련해서, 특히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재난상황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지금 이것은 전체 기본계획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별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는 아르크미술관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듯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가의 집 같은 경우에는 사적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면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 나갈 것인데요. 예술가의 집이 좀 까다롭고 사적이다 보니까 반경 몇 km는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법률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장애인을 포함해서 시설에 출입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 매뉴얼을 따로 비치하고 직원들이 관련된 교육과 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를 들면 미술관에 점자 유도블록 등이 없을 때 비상상황에서 대피하기가 어렵겠다고 해서 시설물 보강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 어떻게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매뉴얼에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아마 매뉴얼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런 고민들은 아직 접근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이런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조와 함께 공동으로 산업안전위원회를 가동해서 현장 실사도 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의 장애인분들에게 의견도 듣고 하는 상황입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예술극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에 대피 훈련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훈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세밀하게 점검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이 안전관리계획(안)에 공연장의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항목이 분명히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위험 상황에서의 대피방안, 대피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훈련도 있고 매뉴얼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이 계획서에는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접근성 강화라고 하는 차원 외에도 위험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과 내용들도 포함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안전경영’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사실 회의를 하고 있는 예술가의 집은 이 자체가 지어진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면서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예술극장은 올해로 지어진지가 40년이 된 건물이고요. 또 미술관은 40년이 조금 더 넘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9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노후한 건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경영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의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경영을 해 왔다고 하는 부분은 자랑할 만하지만 객관적인 여건 등을 보면 훨씬 더 촘촘한 안전의 그물망을 쳐야 하고요. 지금 이진희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애인을 염두에 둔 시설들의 접근성 강화문제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험시의 대피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피뿐만 아니라 시설의 안전경영 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있는 계획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의결 이후라도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내용이 있는 안전경영책임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할까요?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예, 세부적인 계획은 각 시설별로 내년 사업계획에 다시 수립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우려사항과 지적사항을 잘 전파해서 각 시설별로 보다 충실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의결하고 1월 또는 2월내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의결을 진행할까 합니다. 경영지원부장님 1월이나 2월 정도에 세부 계획을 보고하실 수 있을까요?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예, 각 시설별로 안전경영책임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하고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논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다 찬성을 하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고 모두 동의를 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났고 의결안건 2건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인 안전경영책임계획(안)을 논의하면서 이시백 위원님께서 저희의 수탁사업 즉 지원사업 내에서 이른바 안전보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술창작본부장과 지원부서 쪽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정식 보고안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께서 추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조금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예술창작본부의 부서장들과 논의를 했고요. 일단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심의기준으로 넣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하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결정이 된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서 지원금을 쓰는 것처럼 이것도 검토해서 하는데요. 다만, 상해보험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르지만 행위를 하는 예술 활동 기간이 적어서 괜찮은데요. 제가 지금 감이 없습니다. “화재보험을 1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 지원금에서 과도하게 포함되면, 원래 우리 지원금은 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이고 한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연습 공간 등을 할 때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배리어프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극장 관련입니다. 극장도 저희들이 올해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고 매뉴얼도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극장만이 아니라 우리 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극장이라 상징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외부 기관에 전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성과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우리 공연예술 쪽에서는 과거 김천문예회관 사고 이후 극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들어와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저희가 몇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유란 위원 :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이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지금 방법들을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술인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의무 적용이 되면서 예술계 안에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다른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제도 안에 넣어서 의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단기적으로는 이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구요. 그러나 앞으로 이 제도가 계속 발전해 간다면 전체적으로 위탁이나 수탁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적어도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진전될 필요도 있고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의결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까지 마치고 9개의 보고사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우선 첫 번째 보고사항은 2022년 아르코 국제 심포지엄 운영 주관처 공모 선정 결과와 관련된 결과보고인데요. 전체적으로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오늘 보고안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한성 국제교류부장이 주관처 공모 선정 결과와 관련해서 보고를 이어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총 8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소위원회 결과 보고가 대체적으로 많고 국제사업 부서가 2건인데요. 국제교류부 쪽의 보고를 듣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이 먼저 보고를 해 주시죠.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먼저 보고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포지엄 운영 주관처 선정결과는 당초 보고를 하려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기획형 사업인만큼 올해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주요 결과와 내년도에 이어나갈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제목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제목은 2022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추진 현황 및 2022년 추진 계획 주요사항 경과보고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MOU 관계를 맺었던 싱가포르는 올해 3년차로 마지막 해였고요. 작년에 MOU를 체결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2년차 리서치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네덜란드 쪽과의 협업사업 등 두 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협업사업을 올해 협업사업을 통해서 기획사업도 진행하고 일반단체들한테 오픈해서 총 10건을 선정해서 싱가포르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구요. 저희가 총괄기획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추진사업은 최근에 쇼케이스와 전시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A&T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쪽은 올해 8월경에 총괄기획자 2인을 선정해서 현재 리서치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네덜란드 쪽과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국제심포지엄도 올해 예산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1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했구요. 이달 초에 심의를 거쳐서 총 2건의 응모단체 중에서 1건을 선정해서 보조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도 상반기 5월이나 6월 중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주관처와 협력을 통해서 착실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싱가포르 협력 사업이 종료가 되지만 전체적인 기획사업과 일반 공모사업들에 대한 성과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소정의 성과공유회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덜란드 부분은 2년차 사업으로 올해 리서치 사업을 발전시켜서 협업사업에 대한 공모와 그에 따른 실제 실행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포지엄은 5월이나 6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포스트코로나 중심의 키워드나 지금 이슈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나 융복합 그리고 다양성,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국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로 해서 문화예술의 사회적인 가치와 역할 측면에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비단 심포지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 사업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타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공동기금사업이 2016년부터 영국, 독일, 덴마크, 싱가포르, 네덜란드까지 양자 간의 협업구조로 해서 국가 간의 수교기념 등 계기성으로 력키한 부분도 있었지만 단속성 때문에 계속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서 양자 간도 유지를 하면서 유럽연합 등 이미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자간 협업 방식도 병행을 해서 모색하고자 하고요. 현재 미팅이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MOU를 맺을 수 있는 단계로 해서 후속적으로 협업 사업을 발전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후속적인 계획들은 특이사항이나 이슈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회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국제교류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고필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교류하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편으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민간하고는 별개로 특별한 사람들이 초대되어 이것을 끌어가는 형태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다 남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단위나 다른 기관단위에서 접촉하는 면이 있을 텐데요. 예컨대 네덜란드 쪽은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전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었고 그쪽과 뭔가를 해 보려고 도모하다가 감독이 바뀌게 되면 끝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합해서 움직이면서 가면 어떠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것들을 공개로, 물론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단위에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각종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가면, 물론 맥락들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2년도 추진계획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자꾸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같이 얘기해야 할 지점들이 인류세와 관련해서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론의 하나로 인류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과학적인 부분에서 언급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질학적인 부분 등에서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민간이 지구를 파먹기 시작한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 자체가 이미 기후변화의 가장 큰 촉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거든요. 인류세와 기후변화를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크게 위축받는 게 국제교류고요. 특히 우리가 보고를 받는 공동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기금을 내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파트너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기성 사업으로 예컨대 수교60주년이라든가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동원되는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어서 그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그것조차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일정 정도 한계에 부딪치고 새로운 사업 활로를 열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으시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잘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조금 더 활력을 잘 내도록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저도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고필 위원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회 안에서 지난번 미술관 전시도 그렇고 정책소위 안에서도 그렇고 기후위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가 준비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외부와 교류가 없어요. 지금까지 국제교류 행사들을 보면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성찰과 자기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국제교류는 그냥 이벤트로 해 왔던 관성에 대해서요. 이것은 기후위기 시대와 전혀 안 맞는 방법이거든요. 정반대의 방법이잖아요. 하이엔드 방식의 국제교류를 지향하는 게 성장발전 주의로 만들어왔던 국제행사들이잖아요. 이런 국제행사들은 대부분 자기성찰적 모드로 전환되고 있어서 이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팀들이 저희 내부 안에서 진행되는 소위나 대토론회의 내용들을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고

요. 저희 젊은 직원들도 관심들이 많아요. 저희 정책혁신부도 연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런 결과들이 국제교류 행사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갖지 못하면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쓰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구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국제교류나 네트워크에 대한 목적과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고 위원회에 전략들이 보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사를 이벤트로 치지 말고 위원회가 국제적인 예술기관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전략과 계획이 뭔지가 수립되고 토론되며 기조부나 정책혁신부에서 협의 되는 시스템을 갖는 등 구체적인 작업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원회에 한번 올라와서 의견을 듣고 행사 이벤트가 끝나면 다음 것을 준비하는 방식 말고요.

이진희 위원 : 질문인데요. 27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신규파트너 기관 모색에서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영국예술위원회 등과 함께 파트너 기관으로 협력했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트너 기관으로 협약을 맺을 때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목표에 기반해서 평가를 할 텐데요. 평가내용 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영국예술위원회의 일부 내용을 참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영국예술위원회가 소수자나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요하게 참고할 정책방향이 나 제도들이 많은데 행사 때 관련된 영국예술위 사람들이 인사말을 하는 것 말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일단 저희가 작년 말에 저희가 공동기금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사업의 개선방향을 연구용역을 맡긴 바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온 상태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공유해 드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내용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드리면,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 내부전략과 계획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이진희 위원이 물은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행사 이후 기후위기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심지어 심포지엄 행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죠.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계기성으로 MOU를 맺고 협업사업을 해 왔던 부분들이, 아까 단속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후속적으로 계속 성과가 공유되고 2년차, 3년차 리서치 협업 사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교류를 맺었던 국가들과 지속 가능하게 파트너십을 유지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구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영국을 비롯한 교류 국가들과 계속 현재 공통의 키워드 등을 발굴해서 동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적인 전체 성과에 대한 분석은 용역작업을 통해서 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기로도 영국, 독일, 덴마크 등 교류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평가되고 사업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

전고필 위원 :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뭔가 갈등이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배운다거나 직접 방문을 하려고 하면 이 채널을 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무엇이 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으니까 대학에 있는 교수들에게 여쭙는다거나 문화관광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여쭙보는 방식으로 거의 해결을 했지만 아직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명색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축적된 성과를 가지고 “이번에 영국에 가시면 예술위원회에 이런 게 있으니까 누구와 만나보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이 공유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이제까지는 저희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국가 대 국가 간에, 아까 ‘국립’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내년도에 신규사업 개발이나 전략을 새로 짜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서 다변화된 스펙트럼 안에서 국제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문화재단 등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정정숙 위원 :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성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투입했고 초청해서 포럼을 열었고 끝.” 그러니까 인풋 자체가 마치 성과처럼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풋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얻었고 아웃컴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특히 이런 국제예술공동기금 등은 일반적으로 하는 작은 사업들도 아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평가들은 인풋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아웃풋과 아웃컴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평가서가 있다면 지금 현재 위원들께 꼭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앞의 부분의 사업들을 잘 진단해야 신규사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참조하시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들을 내실 있게, 정말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기성 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양되어야 하고요. 우리 사무처 안에도 굉장히 많은 전문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도 의견을 잘 나눠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술인들에게 아웃컴으로 결과가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 의견은 없으시죠?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 접수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고요. 후속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부장은 오늘 나온 논의를 통해서 1월이나 2월 중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보고할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보고를 접수 받을까 합니다. 본 안건은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원회가 활발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23차, 24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와 제34차부터 36차까지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 그리고 6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제10차 코로나19 대응 TF 개최 결과, 제4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준비회의 개최 결과 보고를 차분히 받고 제4차와 제5차 청년예술TF 회의 개최 결과를 연이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또한 담당 부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23차, 24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논의안건이 많은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혁신 소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공유해 드린 3가지로 기술과 예술, 예술의 현재성, 기후위기 관련된 워킹그룹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종합적인 정책 제안서로 마무리 하는 것을 1월에 할 생각입니다. 그 마무리 제안서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 들께 회람을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외부에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한 심사제도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린 것처럼 지원총괄부를 포함해서 몇 차례의 논의를 했고요. 조만간 지원사업 심사기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면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쟁점 토론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간략하게 받으셨는데요. 자료를 포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모아서 질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차부터 36차까지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34차, 35차, 36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위나 TF와 마찬가지로 저희 소위원회도 제 2회 아르코대토론회 준비를 계속 진행했고요. 더불어 현장소통소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된 정책제안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전체회의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파악이 되실 것으로 보아 별도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소통소위원회는 내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위원회 나주 본관에서 정기회의와 3기 현소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워크숍을 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소위의 워크숍 내용이 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도 있으니까 현소위에 안 계신 위원님이나 직원 분들 중에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일정을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홍태림 위원 : 예. 1월 18일부터 1월 19일로 날짜를 잡았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홍태림 위원 :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맞아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현장소위의 활동내역이 예술위 내외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소팅 소위원회가 혁신의제에서 예술현장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아르코비전2030에 있는 현장예술 중심의 생태계와 공론장 형성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예술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소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평등예술지원 6차 회의 개최 결과를 받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14일 이후에 회의가 한 차례 또 있었는데요. 대토론회 관련된 사안이었고요. 지금 두 달에 걸쳐서 20~30대 여성예술인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조사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보고서를 행정상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예술인들이 진입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후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등, 성평등 의제가 인권의제라든가 예술계 내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작환경 문제 안에서 좀 분리되어서 이해가 많이 되죠. 통합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연령과 지역과 계급과 젠더의 차이를 통합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연구 중간 과정을 저희가 공유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완료되면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코로나19대응TF 회의 개최 결과를 간단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코로나19대응TF 10차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대응TF는 지난 한 해 동안 활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어떻게 후속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다른 TF나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토론회 내용 관련해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만들었던 코로나19대응TF 보고서가 있는데요. 저희 기관 누리집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저희 준비 위원회는 6차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은 본TF입니다. 본TF 4차와 5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회의는 12월 1일에 했고요. 5차는 12월 23일에 했습니다. 이 사이에 12월 3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는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관철되었던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이행협치단과의 간담회가 12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우리 기금의 안정화를 위한 재정전문가들과의 회의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1일과 23일에 결정되었고 실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행협치단의 현재 활동을 저희가 공유 받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행협치단에서는 우리 블랙TF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시 TF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혁신과제를 검토한 4개의 과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외부, 특히 피해자 소통과 관련해서 강하게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주관이라든지 사회적 기억사업이라든지 이행협치단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공유를 하면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는 어쨌든 기금이 안정되어야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를 했어요.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노력했던 체육진흥기금의 비율을 정확하게 가져오는 방법, 또 하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적세를 만들어보는 방법 그리고 사실 기금과 관련된 주체인 예술인 당사자들이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식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색해 보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2월 1일 회의에서는 예술가치 확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예술후원센터에서 그동안 예술가치 확산과 관련해서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에서는 6차와 7차 회의로 가면서 4개의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4개의 과제 안에 있는 기금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피해자 소통과 관련해서도 유형화를 해서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4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받으셨고요. 연이어 제4차와 제5차 청년예술TF 회의 개최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TF 로드맵에 대한 최종 합의와 아르코대토론회 청년예술 세션 진행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TF로드맵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미래예술캠프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차 회의에서는 TF로드맵 재설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고요. 로드맵 재설정이라고 해도 미래예술캠프 사업 외에는 조정할 내용이 없어서 거의 그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예술캠프를 통하여 청년예술인 네트워크를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은 내년 초에 추진될 예정인 청년참여예산제로 가동될 청년참여예산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풀어낼 여지가 있겠다는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것은 대안으로 부각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최근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인력개발원 쪽에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2월, 늦어도 3월 중에는 청년참여예산제 공모가 나갈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을 조만간 빨리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홍태림 위원님, 이진희 위원님, 정유란 위

원님, 정정숙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및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차분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처 말씀하지 못한 내용은 33쪽부터 75쪽까지 회의록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총괄하여 소위원회 TF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활동 내용을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개의 보고사항을 모두 일괄하여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긴 시간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차기 회의를 잡아야 하는데 내년 1월입니다. 13일이 목요일이고 마지막 금요일이 28일인데요. 13일 간담회와 28일 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잡을까 합니다. 한해를 매듭짓는 마지막 위원회인데요. 회의가 끝나기 전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및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전체적으로 2억 9,0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540만 명이 넘는 인류의 희생을 치른 이 시대를 아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정리되면 죽음의 시대거나 암흑의 터널로 표현할 것입니다. 올해 한해 예술위는 예술의 생존이라는 문제에 대응해서 어려운 현장예술의 최후 버팀목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였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험난한 한해가 지나갑시다만, 내년 역시 어려운 형편이 예측되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예술가의 친구 또 예술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역할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현장예술인 모두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2년 정시공모 사업이 정말 어려운 예술계에 작은 위로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예술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 위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예술과 예술인이라고 하는 지위와 예술이라는 가치를 함께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예술이 어려우면 예술위도 어려운 것이고 예술위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운명공동체인 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현장예술을 지지하고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제32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회의종료)